

特輯

世界 石油情勢를 진단한다

# 石油市場의 안정과 OPEC의 役割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이 자료는 OPEC사무국의 Massood Vajed-Samii 박사가 지난 9월 캐나다에서 열렸던 「석유 및 가스會議」에서 발표한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註〉

지난 9월 14일 OPEC는 創設 24주년을 맞이하였다. 그 동안 OPEC는 石油市場의 혼란과 여러 分野에서의 압력을 극복하고 第3世界의 주요한 機構로서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石油市場의 가격안정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만일 OPEC라는 機構가 없었다면 石油價格은 더욱 변동이 심했을 것이며, 따라서 세계경제에도 더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난 70년대 OPEC는 최대 생산능력 가까이 原油를 생산하는 가운데 先進工業國과 開發國에서 석유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OPEC의 생산량과 생산능력을 증대시키라는 압력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대부분의 需要展望에 따르면, OPEC原油의 수요가 80년대 중반에는 실제생산능력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상황은 反轉되었다. 지난 수년동안 전반적인 石油需要가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OPEC原油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줄었다. 79-83년 기간동안 OPEC石油需要는 하루 약 1천4백만배럴이나 감소했다. 1983년 2월 OPEC의 생산량은 創設 이후 최저수준인 1천5백만b/d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는 최고수준을 기록했던 1979년 3천1백만b/d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이다.

OPEC原油의 수요감퇴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에너지節約, 연료의 대체, 非OPEC產油量的 증가, 美달러貨의 강세, 美國 및 기타 先進工業國들의 불황과 備蓄油放出등에 기인된 것이었다.

1983년초 石油市場은 매우 침체되어 있어 石油價格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돌았다. 더욱이 備蓄油放出量도 크게 늘어나 약4백만b/d에 달했으며, 이는 계절적인 요인과 더불어 가격인하를 예상한 투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일부 非OPEC 석유수출국들은 계속 생산량 극대화와 市場價格 판매방침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政策은 곧 非OPEC 산유국들이 공급부족시에는 제일 먼저 석유가격을 인상하고 공급과잉시에는 생산수준 유지를 위하여 제일 먼저 가격을 인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983년 2월 北海원유가격의 인하는 아프리카產 원유가격과 더 나아가 OPEC의 가격구조에 압력을 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의 問題點은 체계적인 가격인하를 함으로써 石油市場의 안정을 회복시키느냐, 아니면 경쟁적인 가격인하를 함으로써 石油市場의 붕괴를 가져

오고, 이로 인해 국제금융시장, 非OPEC 산유국의 경제, 代替에너지개발에 대한 투자, 에너지市場의 안정과 더 나아가 세계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OPEC會議가 1983년 3월 英國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 石油市場의 안정

3월 OPEC임시총회에서는 石油市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첫째 총회는 基準原油價를 배럴당 34달러에서 29달러로 인하하고 原油의 質에 따른 價格差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産 原油는 基準油價에 비해 배럴당 1달러 높게 책정되어 北海원유와 다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총회는 또한 1천750만b/d로 책정된 OPEC의 生産上限線을 유지키로 합의하였으며, 회원국별 割當量이 정해졌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OPEC의 上限線범위내에서 Swing Producer의 역할을 맡도록 했다.

총회의 결과는 石油市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현물시장가격은 새로운 基準價格으로 상승했으며, 이 基準價를 웃도는 경우도 있었다. OPEC가 石油市場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 안정화되는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으며, 이러한 사실로 인해 市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투기적인 備蓄油 放出이 그치게 되었다. 따라서 1983년 2/4분기에는 備蓄油 放出이 약 50만b/d에 불과했으며 3/4분기에는 在庫비축이 다시 150만b/d로 늘어났다. 이러한 요인과 함께 美國과 日本의 경제가 크게 회복되어 석유시장의 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OPEC의 價格引下는 일부 소비국의 경우, 그 혜택이 별로 크지 못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自國貨로 지불된 주요 西歐소비국의 원유도입비용은 OPEC의 가격인하결정 이후 83년 초반에는 하락했으나, 그 후 美달러貨의 강세로 계속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1983년 3월 이후 달러貨는 프랑스의 프랑貨에 대해서는 26%, 이탈리아의 리라貨에 대해서는 25% 상승했다. 이들 通貨뿐만아니라 달러貨는 또한 日貨를 비롯한 기타 중요 通貨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였다. 주요 선진공업국의 通貨로 평가해 볼 때 달러貨는 금년 8월까지 약 11% 올랐다. 이는 곧 1983년 3월 배럴당 29달러인 基準原油價가 1984년 8월에는 32달러로 상승한 것과 같다.

OPEC의 가격인하를 대부분 잠식해 버린 換率上昇 이외에도 일부 선진공업국의 石油관련稅의 인상과 함께 石油會社의 마진증대는 OPEC의 油價引下결정의 혜택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게 된 요인이다. 특히 西歐에서 더욱 그랬다.

1979년 이후 처음으로 금년에는 OECD國들의 石油消費가 증가하고 있다. 1/4분기에는 4.5% 정도 증가했고 2/4분기에는 약 3% 늘었다. 이러한 소비증가는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北美와 日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반면 경제성장률이 낮고 自國의 通貨가 달러貨에 비해 일반적으로 약세였던 西歐에서는 석유의 소비증가율이 낮았다. 물론 석유수요에 영향을 주는 일시적인 變數도 있었다. 美國과 日本에서는 酷寒이 지속되었고, 英國에서는 광부들의 파업으로 석유수요에 영향을 끼친 반면 西獨에서는 금속노동자들의 파업이 석유수요 증가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

### 石油需要의 회복

현재 석유수요는 회복되고 있으나, 非OPEC 産油國들의 공급이 늘고 있기 때문에 OPEC 原油의 수요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 非OPEC 産油國의 원유생산량은 약 4% 증가했으며, 이 증가분은 英國, 노르웨이, 이집트, 말레이시아와 같은 純石油輸出國과 브라질, 印度와 같은 純石油輸入國의 생산량이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OPEC의 원유생산량은 금년 8월 현재 생산상한선인 1,750만b/d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러한 석유수요의 증가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先進工業國들의 석유수요는 85년에 3.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美國과 日本은 85년에 약 4%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주요 西歐國家들은 85년에도 현재 수준인 2.25%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美國의 과도한 예산적자, 美國과 일부 西歐國家들의 높은 金利, 그리고 과도하게 평가된 달

러貨 등으로 인한 불안요인도 있다.

開途國의 석유수요는 85년에도 현재의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財政壓迫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輸入能力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현재 약 8,3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 外債는 開途國의 석유수요 증가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따라 85년에도 석유수요의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수요의 증가율은 에너지節約과 代替에너지이용률이 최근 현저하게 둔화되긴 했지만, 이들 요인에 의해 약간 영향을 받을 것이다.

OECD와 開途國의 석유수요증가가 OPEC 원유의 수요증가를 유발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非OPEC 產油國의 공급량증가와 비축수준의 변화에 달려 있다. 北海, 브라질, 印度, 이집트와 말레이시아의 생산량은 약간씩 늘어날 전망이다. 멕시코는 30만b/d의 생산능력을 休止시켰음에도 불구하고 OPEC에 대한 지지공약을 표시해 왔으며, 생산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30만b/d의 자체 生産上限線을 책정함으로써 석유시장의 안정을 위해 협력해 왔다. 非OPEC 產油國의 공급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와 開途國들의 석유소비증가는 결국 OPEC원유의 수요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 石油備蓄의 영향

石油의 備蓄動向은 석유시장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석유비축량은 그리 많지 않고,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을지라도, 단기적인 비축동향은 석유시장의 不安要因이 될 수 있다. 만약 계절적인 요인이든 투기적인 요인이든 비축확대나 備蓄油放出이 단기간내에 일어난다면 OPEC원유의 일시적인 수요변동이 유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83년 하루 평균 약 100만배럴의 備蓄油 放出은 석유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짧은 기간동안에 집중된다면 금년 2월말과 3월초와 같이 備蓄油 放出으로 인해 400만b/d 이상의 초과공급량이 발생, 석유시장에 전반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며,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O

PEC원유의 수요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더욱이 OPEC 產油國들은 생산시설의 休止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종 수요의 계절적인 변동은 OPEC 석유의 수요에 前보다 더욱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OPEC의 총생산량 조정에 있어서는 더욱 탄력성이 요구되고 있다.

OPEC은 석유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많은 댓가를 치루고 있다. 석유시장이 악화되고 생산량이 감소하여 OPEC 會員國들은 국제수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1980년과 1981년에 막대한 經常收支 흑자를 기록한 후 OPEC은 1982년 사상처음으로 80억달러의 赤字를 시현했으며, 이 赤字幅은 1983년 170억달러로 늘어났다. 금년도에는 赤字가 110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곧 會員國들이 석유시장의 변화와 1980년 이후 발생한 1000억달러 이상의 石油收入감소를 고려하여 경제의 구조적 조정을 단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장변동의 전책임을 OPEC만이 지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시장안정의 혜택은 모든 당사자, 특히 석유시장을 안정시키려는 OPEC의 노력에 동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非OPEC 產油國들이 누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OPEC과 기타 非OPEC 석유수출국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화는 석유수출국 뿐만 아니라, 석유시장 전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 非OPEC 석유수출국들은 석유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일시적인 市場壓力에 대항하고 있다.

지금까지 석유시장을 안정시키려는 OPEC의 노력은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성공으로 각 會員國들은 전반적인 가격구조와 생산할당량의 고수를 지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석유시장은 현재 취약한 상태에 있지만, 모든 要因들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과 달러貨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석유시장은 앞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의 속도, 석유수요의 회복, OPEC 會員國들이 외화수입감소에 맞게 경제규모를 조정할 점, 시장안정을 위한 OPEC의 열망등은 모두 긍정적인 현상이다. \*